

75년래 우리 나라 인당 가처분소득 75.8배 증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75년 경제사회발전 성과 계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49년의 49.7원에서 2023년에 3만 9,218 원으로 증가됐다. 물가 요인을 제외하면 75.8배 증가되었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6%에 달한다.

빈곤퇴치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농촌 빈곤 기준에 따르면 1978년말 농촌 빈곤인구는 7억 7,000만명, 농촌 빈곤 발생률은 97.5%에 달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각지 정부 및 부서가 빈곤퇴치사업을 착실히 수행한 결과 2020년 모든 농촌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빈곤퇴치 난관 돌파전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여 절대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다.

세계 빈곤 감소 사업에 중대한 기여

를 했다. 빈곤퇴치현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의 1만 2,588원에서 2023년의 1만 6,396원으로 년평균 실제적으로 8.2% 증가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75년간 우리 나라는 주민 소득원이 다원화되고 도시 농촌간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소득 분배구도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됐다. 18차 당대회 이래 수입 분배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 성과가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전체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농촌 주민 소득의 증가율이 도시 주민의 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 2023년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2년보다 111.4% 확대된 2만 1,691원으로 년평균 7% 증가했다. 이는 도시 주민 소득의 년평균 실질 증가율보다 1.8% 높은 수치이다.

소비 수준도 빠르게 향상됐다. 2023년 1인당 소비지출은 2만 6,796원에 달했다. 물가 요인을 제외하면 1956년보다 36.5배 늘어난 규모로서 1957

년—2023년 년평균 5.5% 증가했다. 주민 소비 질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소비구조가 부단히 최적화되었으며 발전형, 향수형 소비가 비교적 빨리 증가되고 서비스 소비 잠재력이 부단히 방출되었다. 2023년 우리 나라 주민의 1인당 서비스 소비 지출은 1만 2,114원으로 2013년의 5,246원보다 130.9% 증가, 당해 전체 소비지출의 45.2%를 점한 것으로 2013년의 해당 비중보다 5.5% 향상됐다.

/ 신화사



중경시 사평패구 정구가두 미려양광가원사회구역 양로봉사센터에서 로인들이 부채 수공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 신화사

연변의 이 두 기업, 길림성 제조업 단일종목 우승기업으로

길림성공업정보화청이 공시한 첫진의 길림성 제조업 단일종목 우승기업 명단에 연변의 아련기계주식유한회사,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유한회사 두 기업 및 두가지 제품이 선정되었다.

단일종목 우승은 장기적으로 제조업 특정 세분화 분야에 집중하고 비교적 양호한 혁신 기초 조건과 비교적 강한 기술혁신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생산 기술이나 공예 수준이 국제,

국내 선진수준에 도달하고 단일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혹은 전국에서 앞장선 기업을 가리킨다.

아련기계주식유한회사의 연속평압기(双钢带连续平压机) 생산라인은 우리 나라에서의 유럽 인조판 설비의독점 국면을 타파하고 수입을 대체하여 우리 나라 연속평압기 생산의 공백을 메웠다. 기업은 인조판 생산분야의 고품질 장비제조 업체로 되어 시장 점유율이 업계 앞자리를 차지

한다. 2021년도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고성능 목재복합재료 선진제조및 응용관건기술 대상을 받았다. 2023년의 판매수입은 5억 9,611여만원을 실현했다.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유한회사는 중앙약제 생산가공 분야에 주력해온 현대화 기업으로서 연속 10여년간 '중국 제약공업 100강', '중국 500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에 자리를 굳혀왔고 자산 품질은 동업종 앞자리를 차지한다.

주도 제품인 '안신보뇌액'은 1981년에 출시된 이래 43년 동안 전국 70%의 체인 상가와 협력관계를 맺었는데 그중 90%가 판매 지표를 수행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98% 좌우에 달한다. 이 제품은 줄곧 동류 제품 가운데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다년간 연간 판매액 4억원을 돌파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2023년 '안신보뇌액' 판매수입은 7.5억원을 돌파

/ 연변뉴스넷

했다.

장백현 과원촌에 자리한 전자상거래창업생방송센터 활력 발산



/ 중국길림넷

청기와에 하얀 벽, 6각 지붕... 줄 늘러히 늘어선 조선족 풍격의 민가와 패루, 물레방아, 조선족민속문화관... 장백현 마록구인 과원촌은 조선족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조선족 전통 마을이다. 전통과 현대 풍격이 융합된 이 작은 마을에 장백현전자상거래창업생방송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년간 장백현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현역 유세를 둘러싸고 특색마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당조직 + 운영회사 + 전자상거래 생방송 + 민박'의 농민을 연결하고 농민들을 치부대로 이끄는 모식을 실행 보급하고 있다. 집중통일되고 개방공유된 전자상거래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브랜드, 운영 기술, 물류 고객센터를 통일하며 원스톱 다중

체인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산업을 진흥시키며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특산품의 온라인 지구적 판매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백현은 전자상거래 기업과 과원촌을 조직하여 농업축진플래트홈회사를 설립하고 현정부는 '압록강진선' 전자상거래 공용 IP 브랜드를 통일적으로 등록하였는데 현재 이미 23개의 특색 제품을 진선(甄选)했다.

14도구촌의 '호안만년청', 과원촌의 '김삿갓된장', '태양춘당면'... 장백현전자상거래창업생방송센터에는 진선된 각종 농특산품이 가득 진열되었다. 여러 큰 플래트홈의 인기 판매 제품에서 정선된 장백 특산품은 50가지, 이런 특산품은 다양한 판매 수요

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특색 농산품의 판매도 이끌고 있다.

“‘전자상거래 + 문화관광’ 단체식 전자상거래 운영 모식을 통해 우리는 이미 116명의 왕홍 달인과 손잡았다.”고 전자상거래생방송센터 직원 조의란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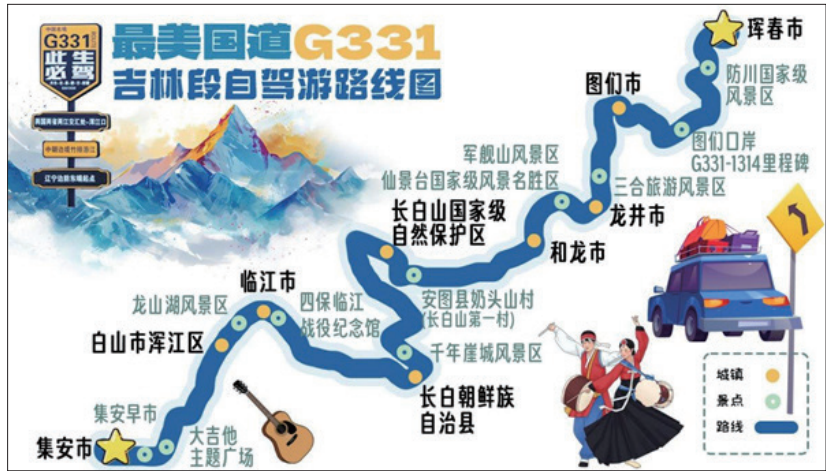
전자상거래창업생방송센터에 의탁하여 과원촌은 또 촌기업과 연합하고 관광객 창업 민박 집군을 구축하여 당분간 과원촌에 머무는 왕홍 달인들에게 숙박과 생방송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려행지 생방송 창업을 실현하고 생방송 창업 과정에서 민속문화를 체험하게 했다. 2023년에 과원촌의 관광객은 연인수로 7만명, 촌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2021년보다 1.5배 증가되었다.

‘장춘기점’은 과원촌 자영업 민박집에 입주한 왕홍 강소완 부부인데 200여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강소완 부부는 이곳을 매우 좋아한다며 “이곳의 독특한 자연풍광과 풍부한 리하자원에 매료되어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과원촌에 상주하며 전자상거래 창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한다.

‘장춘기점’과 같은 왕홍을 과원촌에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촌에서는 또 전문적으로 ‘왕홍숙집공약’을 제정하여 화물량, 팔로워량에 따라 부당한 숙식 우대와 장려를 항수하게 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왕홍 달인들이 ‘변경촌에 머물고 변경촌에서 창업’하여 변방을 안정시키고 흥분부문에 힘을 이바지하게 하고 있다.

/ 길림일보

‘장백 비경 G331’ 고찰 전파 활동 가동



제도 출처 / 중국길림넷

G331 도로연선의 특색 관광자원을 한층 더 발굴, 전시하고 G331 도로 드라이브 려행의 지명도와 흡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진 길림성문화관광청과 《중국국가지리잡지》가 공동으로 기획한 ‘장백 비경 G331’ 중국국가지리·가장 아름다운 도로 고찰 전파 계열 활동이 9월 23일 장춘에서 가동되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조로보가 고찰단에 기발을 수여했다.

G331 관광대통로는 G331 길림성 주요 구간 및 연장선을 교통 담체로 하는데 길이가 1,314킬로미터이고 10개 변경 현 (시, 구) 을 경유한다. 이 구간은 자연천품이 아주 좋고 자연풍광이 장려하며 민족 민속 풍토가 짙다. ‘생태전국, 력사화랑, 방설명성지, 영웅요람, 중조비경’ 5대 자원 특색이 두드러지고 ‘세계지질공원 - 장백산’, ‘세계문화유산 - 고구려’ 등 2대 세계적인 IP를 갖고 있는바 ‘중국 북쪽 변경도로의 왕’ G331 자기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집중되고 가장 다채로운 구

간이다.

이번 고찰단은 《중국국가지리잡지》 전문가, 국내 유명 사진작가 및 도로, 려행 내용 창작자들로 구성되었다. 8일간의 시간을 리용하여 장춘—집안—림강—장백조선족자치현 및 장백산—도문—훈춘—연길 등 일정으로 장백산문화관광벨트의 자연경관과 력사적 저력을 탐색하게 된다.

길림성 변경 (沿边) 개방관광대통로를 건설하는 것은 새시대 동북 진흥의 새로운 담당과 기여이며 길림성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이번 행사는 고찰단의 렌즈를 통해 G331 연도의 초목풍경과 풍토인정을 기록하고 변경지역 인민들의 생활 지혜와 독특한 문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G331 관광대통로의 가장 진실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을 료해하고 길림성에 와보게 하며 길림성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두었다.

/ 길림일보

‘길림제조’, 2024 세계제조업대회서 주목받아

9월 20일, 안휘성 합비에서 개막된 2024 세계제조업대회서 길림성의 고급장비 제조 분야의 전시품이 주목을 받았다. 길림성에서는 80개 기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418종, 1,374점의 제품을 전시하였다.

대회 개막일은 ‘길림 1호’ 광폭 02B01-06 위성이 발사되는 날이었다. 동료로부터 ‘발사 성공’ 소식을 들은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 사업일군 최소위는 흥분되어 전시회를 관람하는 군중들과 이 소식을 공유했다. “오늘부터 ‘길림 1호’의 궤도 위성수가 108개에서 114개로 증가되어 세계 임의의 장소를 매일 37~39회 재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를 1년에 6회, 전국은 반달에 1회 탐사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

길림성 전시구역 중앙에 전시된 ‘흥기’ 신에너지차 차종 EH7, 고급 MPV 차종의 HQ9 PHEV가 인기몰이를 한 가운데 적잖은 차 ‘전문가’들을 흡인했다.

합비시 시민 왕훙은 기자한테 “안휘성도 자동차 대성이다. 신에너지차종이 많지만 이 두 차종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EH7의 전기 모터 회전 속도는 분당 2만 2,500회까지, HQ9 PHEV는 만유만전 상태에서 항속거리가 800킬로미터 넘는다...

이것은 모두 대단한 기술이다. ‘흥기’ 브랜드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완성차 전시외에 길림성의 중점 자동차 부품 기업도 래스터, 곡면 3륜 스크린, 손잡이 스크린 등 주요 제품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중에는 ‘중국 제조업체 500강’, ‘중국 기계기업 500강’, ‘국가급 첨단기술기업’,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신형’ ‘작은 거인’ 기업이 적지 않아 국내외에서 온 많은 바이어들의 견학 교류를 이끌어냈다.

장소의 제한으로 중차장중궤도 객차주식유한회사는 이번엔 ‘시속 160킬로미터 수소에너지 지능 시역렬차’ 등 궤도렬차 모형만 전시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 속에서 기념사진 촬영 배경으로 실려갔다. 길림화학섬유주식유한회사는 탄소섬유 자전거, 바드민턴 라켓, 트링크 등 제품을 전시하였는데 관람자들이 손에 쥐고는 분분히 그 가벼움과 견고함에 경탄하였다. 동북 특색이 강한 스케트신발, 발열 양말, 스키복 등 방설운동장비는 길림성 방설놀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일련의 ‘길림장비’ 제품들은 강대한 기술과 브랜드의 힘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 길림일보

아름다운 ‘길림’ 화폭—붉은 수수밭



황금 가을, 백성시 진래현 진래진 곡씨촌의 붉게 물든 수수밭과 그 너머에 줄지어선 풍력발전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람을 도취시키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길림’ 화폭을 이루고 있다.

/ 길림일보